

대학의 위기와 체육계열 학과의 실천적 과제

이주욱*, 한동수**, 윤대현***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대전태평중학교**,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

Crisis at Universities and the Practical Issues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Related Departments

Joo-Wook Yi*, Dong-Soo Han**, Dae-Hyun Yun***

Dept. of Physical Education, The College of Education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Taepyeong Middle School**

Dept. of Sport Sciences,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대학구조조정은 ‘대학 교육의 질 강화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가? 현재 진행 중인 대학구조조정의 본질적 문제는 대학의 위기로 다가오고, 더 나아가 체육계열 학과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학의 위기와 체육계열 학과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체육’의 역할과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대학에서 체육계열 학과의 지향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체육계열 학과는 처방적 개선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적 과제를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다. 둘째, 각 지역과 대학의 상황을 고려한 특성화 전략이다. 셋째, 노동시장 여건 전망과 연계된 체육계열 학과의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육계열 학과의 연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제어 : 대학구조조정, 체육계열 학과, 특성화, 지향성, 현황분석

Abstract Is university restructuring for 'reinforcing university education quality and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on going university restructuring becomes crisis of university and moreover, Sports Related Departments faces huge crisis. This research analyzes university crisis and progress of Sports Related Departments . After conducting discussion about a directivity of Physical Education in university with a focus on role and direction of 'Physical Education' which is for realization of 'University's ideal, Sports Related Departments proposed four practical tasks, which is for preventive improvement, not for prescriptive improvement. First, Effort to establish academical identity. Second, characterization strategy for each different region and university. Third, Reforming of Sports Related Departments related with prospect of the labour market. Last, Drawing up a plan for establishing Sports Related Departments' united system.

Key Words : University Restructuring, Sports Related Departments, Characterization, Direction, Analysis of Current Information

* 본 논문은 2013년 한국 스포츠과학자 통합학술회에 주저자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Received 10 November 2015, Revised 28 December 2015

Accepted 20 January 2016, Published 28 Jan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Dae-Hyun Yun

Email: dhyun-cnu@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대학의 총체적 위기

우리나라의 대학은 2015년 9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대학구조조정¹⁾, 학령인구의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대학의 위기는 체육계열 학과²⁾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의 체육계열 학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위기의 상황을 직시하기 위해 최근 자료를 검토하고, 각 대학의 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의 구조조정은 본래 목표인 ‘대학 교육의 질 강화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오직 대학입학정원의 축소가 목표로 전도되었다는 구조조정의 본질적 문제를 언급하고, 현실의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지

적한다[1].

또한 지금의 대학 구조개혁은 정부가 주도하는 양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대학과 중소대학은 위기가 예견되고 있다[2]. 결국 2015학년에 2.65%, 2016학년에는 6.0%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7학년까지 총 19,085명(7.3%)을 감축할 계획이다. 그에 따라 수도권 대학은 평균 3.7%, 지방대학은 평균 8.7%를 감축하게 된다[3]. 2014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보면 총 5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나누어 보통이하의 등급을 받을 경우,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고, 학자금 대출의 제한을 받게 된다. 아래의 <Table 1>은 2015년 9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이다[4].

또한 “지방대 입장에서는 취업률, 학생충원율, 교수 1

<Table 1> Evaluation system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 Current state of capital area and each province university[4]

(unit: n of school)

Division		A grade	B grade	C grade	D grade	E grade	Total	Separate Measure	Except. of Evaluation	
Reduction ratio	University	Voluntary	4%	7%	10%	15%				7%
	College	Reduction	3%	5%	7%	10%	5%			
University	Capital Area	Number	20	15	11	8	3	57	2	12
		Ratio	35.1%	26.3%	19.3%	14.0%	5.3%	100.0%		
	Area	Number	14	41	25	18	3	101	3	17
		Ratio	13.9%	40.6%	24.8%	17.8%	3.0%	100.0%		
	Total	Number	34	56	36	26	6	158	5	29
		Ratio	21.5%	35.4%	22.8%	16.5%	3.8%	100.0%		
College	Capital Area	Number	2	4	21	12	2	41	2	-
		Ratio	4.9%	9.8%	51.2%	29.3%	4.9%	100.0%		
	Area	Number	12	22	37	15	5	91	1	2
		Ratio	13.2%	24.2%	40.7%	16.5%	5.5%	100.0%		
	Total	Number	14	26	58	27	7	132	3	2
		Ratio	10.6%	19.7%	43.9%	20.5%	5.3%	100.0%		

- 반상진(2015)은 ‘대학구조개혁’과 ‘대학구조조정’의 혼용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대학구조조정(restructuring)은 조직의 효율성 가치를 강조하면서 대학의 통폐합 및 인원 감축 등 다운사이징(downsizing)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정의한다. 한편 대학구조개혁은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순한 기구 축소가 아니라 대학의 원천적 기능을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데 역점을 둔 대학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 ‘체육계열 학과’는 단과대학 개념이 아닌 체육 관련 학과를 지칭한다. 따라서, 특정 체육대학의 문제가 아닌 체육관련 학과 전체의 문제로 다루기 위해 위의 단어를 사용했다.

인당 학생 수 등 30여 개 평가항목 자체가 지역 대학에는 태생적으로 불리하다는 의견이 높았다”면서 “지역에서의 대학 역할을 감안해 지방대가 그 지역에서 맡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의 자료를 분석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 57개교 가운데 35.1%인 20개교가 A등급을 받고, 지방의 101개 일반대 가운데 13.9%인 14개교만 A등급에 포함되었다.

결국 수도권 대학 중심의 대학 불균형 구조는 대학의 서열주의, 대학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저변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5]. 대학의 위기는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고등교육 정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특정 대학의 책임으로만 귀결되고 있는 상황은 위기로 진단할 수 있다. 더불어 체육계열 학과의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

체육계열 학과의 현실은 대학의 위기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중장기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계열 학과의 역할의 재정립을 비롯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체육계열 학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체육계열 학과가 미래에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예견적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지향적 접근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체육계열 학과의 외연 확대와 특성화에 대한 노력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개선점은 막연하다고 지적한다[6, 7]. 체육계열 학과의 방향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방점을 두고, 대학에서 체육계열 학과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차원과 ‘체육’을 강조하면 대학에서 ‘체육’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대학에서 실천되는 학문으로서 ‘체육’의 의미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과 운동부의 육성에 관한 이상적 방향에 관심을 둔다[8]. 이 연구에서는 전자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대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체육’의 역할과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대학에서 체육계열 학과의 지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

‘대학’의 체육계열 학과의 지향점을 논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현실과 미래의 조망이 필요하다. 체육계열 학과의 전제는 대학이라는 기관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대학의 변화와 세부학문 분야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하고 있다. 정부 및 대학은 이에

대한 고강도의 자구책으로 대학 수의 축소 내지는 통폐합, 대학의 정원감축, 학과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통계청의 학령인구 조사에 따르면, 6-21세 초등 학교에서 대학까지의 학령인구가 2030년 616만 3,000명으로 줄어들어 1970년 절반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대학뿐만 아니라 체육계열학과도 존립위기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7]. 2015년 현재 3개 대학(교)이 자진 폐교를 신청했고,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5개 대학(교)이 폐쇄 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Table 2>의 진학률 변화 추이를 보면 초·중등과정의 진학률은 변화의 폭이 미미하지만,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2010년을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전문계고 학생들의 진학률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일반계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2008년까지 87.9%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4년 현재 78.7%로 9.2% 감소했다. 특히 2005년부터는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국외진학자가 포함된 것이다. 대학의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대학진학보다 취업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2> Trend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entrance rate[9]

(unit: %)

Division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Elementary school → Middle schoo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iddle school → High school	99.6	99.7	99.6	99.7	99.7	99.7	99.7	99.7
High school →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Total	62.0	77.0	77.8	75.4	72.5	71.3	70.7
	Academic high school	83.9	87.9	84.9	81.5	75.2	76.2	77.5
	Special high school	42.0	72.9	73.5	71.1	63.7	54.9	47.4

2014년 현재 중등학교 학령인구는 10년 전인 2004년과 비교했을 때, 중학교는 2006년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최종 7.4% 감소), 고등학교는 2009년 이후로 지속적 감소(최종 4% 증가) 추세이다<Table 3>.

<Table 3> Annual change of the number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10]

(unit: n)

Year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2004	4,116,195	1,933,543	1,746,560
2005	4,022,801	2,010,704	1,762,896
2006	3,925,043	2,075,311	1,775,857
2007	3,829,998	2,063,159	1,841,374
2008	3,672,207	2,038,611	1,906,978
2009	3,474,395	2,006,972	1,965,792
2010	3,299,094	1,974,798	1,962,356
2011	3,132,477	1,910,572	1,943,798
2012	2,951,995	1,849,094	1,920,087
2013	2,784,000	1,804,189	1,893,303
2014	2,728,509	1,717,911	1,839,372
Before 10 years/ comparison ratio	34% decrease	11.2% decrease	5.3% increase

2015년에도 많은 대학을 운영하는데 위기로 볼 수는 있지만 예상되는 어려움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초등학교 연도별 학생 수의 변화를 보면 위기를 직감할 수 있다. 학령인구가 2004년에 비해 34%가 감소한 것이다. 물론 1-6학년까지의 학생 수의 총합이므로 대학에서 체감하는 것은 학년별 온도차이가 있겠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2 전문대학 입학자원의 감소 추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양적으로는 급속한 성장을 거듭했다. 이것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며, 대학교육의 ‘보편화3’ 시대를 개척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관한 비판은 양적성장애 비해 교육의 질적 수준이 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6].

한편, 학령인구의 감소가 대학의 운영에 있어 문제들이 가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007년을 기점으로 2014년까지 감소하고 있다<Table 4>. 10년 전인 2004년에 비해 재적학생 수 17.5%가 감소했다. 우리나라 대학의 확대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김정수·정익채·노종호[11]는 전문대학의 확대는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한 기술교육 지원 정책에 기인하고, 1970년대 전문대

3) 보편화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대학이 지방에도 많이 분포된 것에 대한 의미로 사용하였음

학의 급속한 확대는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Table 4> Annual change of the number of university student[10]

(unit: n)

Year	University(number)			College(number)		
	Enrollment	Enrolled	Leave of Absence	Enrollment	Enrolled	Leave of Absence
2004	1,836,649	1,267,585	569,064	897,589	551,805	345,784
2005	1,859,639	1,263,932	595,707	853,089	530,149	322,940
2006	1,888,436	1,290,680	597,756	817,994	527,614	290,380
2007	1,919,504	1,318,029	601,475	795,519	519,698	275,821
2008	1,943,437	1,330,080	613,357	771,854	503,397	268,457
2009	1,984,043	1,358,714	625,329	760,929	488,913	272,016
2010	2,028,841	1,391,867	636,974	767,087	494,018	273,069
2011	2,065,451	1,437,058	628,393	776,738	503,493	273,245
2012	2,103,958	1,484,231	619,727	769,888	492,681	277,207
2013	2,120,296	1,505,445	614,851	757,721	484,299	273,422
2014	2,130,046	1,529,307	600,739	740,801	479,623	261,178
Before 10 years/ comparison ratio	Volume reference number of students/ 16% increase			Volume reference number of students/ 17.5% decrease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문대학정비방침에 의해 전문대학 수의 증가가 잠시 주춤했다. 더불어 4년제 대학의 증가로 인한 전문대학 입학자원의 감소와 같은 고등교육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전문대학의 위기는 대학 수의 축소, 통폐합, 정원감축 등과 같은 것으로 이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수도권과 국립대학들은 과급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먼 지역을 중심으로 위기의 체감은도는 높아질 것이다. 한편 4년제 대학에서 전문대학으로 유턴하는 학생들이 25% 늘어난다는 보도가 발표됐다. 2012년 1,102명, 2013년 1,253명, 2014년 1,283명, 2015년 현재는 1,379명으로 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취업난 속에서 전문대 유턴족4이 매년 늘어나면서 지난 4년간 3,857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허비됐다.”고 지적했다[12]. 하지만 이러한 유턴족의 증가를 단순히 사회적 비용을 헛되이 쓴다는 분석보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성격을 구분하고, 이에 각 대학의 절충점 또는 차별화된 대학과 전문대학의 본질을 고민하는 정책 분석이 요구된다.

4) 일반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 전문대학으로 재입학하는 학생들을 ‘유턴(U-turn)족’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체육계열 학과의 현황

우리나라 대학 체육계열 학과의 외형적 성장은 체육계열 학과 보유 대학수로도 확인할 수 있다. 1999년 대학교 158개, 전문대학 161개에 체육계열 학과가 개설되어 있었던 것이 2014년 현재는 각각 189개, 208개로 확대되었다. 체육계열 대학(교)은 모두 대학의 숫자보다 학과의 수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교) 마다 체육계열 학과가 있거나, 2개 이상의 학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년제 대학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대학교 수가 증가했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급속히 증가했다. 하지만 200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문대학 체육계열 학과 수도 2007년을 기점으로 증가 폭이 줄고, 감소 폭이 늘어나고 있다[10].

<Table 5> Annual growth of Sports Related Departments student[6, 10]

Division	University				College			
	Total number of University		number of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Total number of Colleges		number of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Uni.	in & de	Dept.	in & de	Col.	in & de	Dept.	in & de
1999	158		166		161		99	
2000	161	+3	183	+17	158	-3	129	+30
2001	162	+1	198	+15	158	0	147	+18
2002	163	+1	200	+2	159	+1	159	+12
2003	169	+6	215	+15	158	-1	174	+15
2004	171	+2	234	+19	158	0	191	+17
2005	173	+2	257	+23	158	0	212	+21
2006	173	0	295	+38	152	-6	246	+34
2007	175	+2	305	+10	148	-4	240	-6
2008	174	-1	322	+17	147	+1	236	-4
2009	177	+3	332	+10	146	-1	252	+16
2010	179	+2	348	+16	145	-1	261	+9
2011	183	+4	358	+10	147	+2	266	+5
2012	189	+6	386	+28	142	-5	248	-18
2013	188	-1	393	+7	140	-2	223	-25
2014	189	+1	386	-7	139	-1	208	-15

1999년부터 2014년까지 4년제 체육계열 학과 수의 증가폭을 보면 166개 학과에서 386개 학과로 2.3배 증가했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99개 학과에서 208개 학과로 2.1배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시간동안 대학(교)의 꾸준한 증가와 그 맥락을 함께 한다. 하지만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006년의 대학 수 감소의 영향으로 2007년부터 체육계열 학과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 통계자료에서 학과의 설치와 폐지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증가 폭과 감소 폭이 커서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고 폐지 혹은 통합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체육계열 대학은 비교적 호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14년 현재 학과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불황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짐으로 이해할 수 있다.

4년제 체육계열의 증가추세는 전공분야별 학생 구성비에서 예체능계열의 증가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예체능계열과 사회계열의 증가 추세가 다른 전공분야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체육계열도 뚜렷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Table 6>의 수치에는 무용관련 학과는 제외했기 때문에 체육계열의 증가 폭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체육계열 학과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진학 대상자의 감소 추세이다. 그로 인해 대학 모집 정원이 진학 예정자의 수를 초과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대학 진학자의 관심의 변화이다. 즉 취업과 연계된 것이다. 실질적 경제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학과 선택이 실용적 학과에 편중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학과 수와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6]. 특히, 김홍식·민현주[6]는 체육계열 학과의 교과과정의 다양화, 전문화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간판만 바꾸고 물건은 그대로’인 ‘신장개업(新裝開業)’에 비유하고 있다. 결국, 대학 본연의 지식

<Table 6> Distribution ratio of student in different college major[10]

Division	Humanities	Society	Education	Engineering	Natural science	Medical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unit: %)
1999	14.8	25.1	4.2	29.4	15.1	3.5	7.9(1.7)
2004	13.7	27.4	4.2	28.6	12.9	3.5	9.8(2.4)
2012	13	29.9	4.1	25.9	12.1	4.5	10.6(2.8)
2014	12.7	28.9	4.1	26.3	12.1	5.2	10.6(2.8)

을 추구하고, 대학의 본질에 적합한 실천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진로와 책무성 강화 그리고 전문성이 드러날 수 있는 체육계열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된다.

3.1 체육계열 학과의 학생 수와 교수 수에 추이 분석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의 설립 취지는 다르지만, 학령인구와 대학진학을 감소는 대학(교)에 위기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체육계열 전공의 체계화가 요구된다. 즉, 학문⁵⁾으로서 논리를 갖고 학과⁶⁾로서의 단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종목'을 '학과'로 만들고, 비슷한 이름의 '학과' 명칭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대학(교)의 축소, 통폐합, 정원감축, 학과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은 수도권 특의 대학을 제외하면 위협적인 상황이다. 이에 학문과 학과로서의 체계화도 중요하지만 대학(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Table 7>은 체육백서(2013)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교육통계분석 자료집에 비해 학과 수가 많은 것은 무용학과를 포함하고 사범계열의 학과를 포함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7> The number of Sports Related Departments students and teachers in university[13]

(unit: n)

Dept.	Num.	Number of students			Number of professors		
		Total	Men	Women	Total	Men	Women
2009	439	67,308	52,486	14,822	1,125	879	246
2010	451	69,197	53,887	15,284	1,161	919	242
2011	465	69,662	54,163	15,499	1,163	915	248
2012	487	69,330	53,826	15,504	1,209	958	251
2013	599	78,348	60,637	17,711	1,554	1,238	316

5) 학문은 일정한 이론을 바탕이 되고 전문적으로 체계화된 지식을 뜻한다.
6) 학과는 대학의 편제에서 각 학술 분야에 따라 나눈 교육과 연구의 구성단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체육계열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체육백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4년제 체육계열 학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Table 7>과 같이, 대학교 체육계열 학과 학생 수는 2012년 487개 학과 69,330명에서 2013년 599개 학과 78,348명으로, 학과 수는 112개(22.9%)증가하였고, 학생 수는 9,018명(1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육계열 학과 수와 학생 수가 증가하였고 보기 보다는 전문대학교 마찬가지로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에 따라 학과 통폐합 및 학과 간 융·복합화에 따른 학과 신설 등을 통하여 체육 분야와 관광, 레저, 건강, 전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을 위한 학과를 신설하여 저변확대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7].

전문대학의 경우, 학과 수는 증가했지만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4년제 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과수와 학생 수가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의 특성상 전문대학 보다는 4년제 대학교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체육계열의 학생 수는 2012년도까지 변화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정원 감축은 불가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지도자나 선수 및 심판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 육성 등 보다 폭넓은 체육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학과의 융·복합 등을 추진하여 보다 우수하고 많은 인력들이 교육·양성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학생수의 비율은 2010년, 2011년, 2012년과 비교하여 수(2,204명)는 증가하였지만 비율에 있어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학교 교수 현황은 <Table 7>과 같다. 대학교 체육계열 학과 교수 수는 2012년 1,209명에서 2013년 1,554명으로 345명(28.5%)의 증가가 있었으며 전문대학과는 달리 4년제 대학교의 경우 지속적인 교원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2009년에 교수 1인당 학생수는 59.8명에서 2013년 교수 1인당 학생수는 50.4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문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4년제 대학교의 학생 1인당 교원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학생 1인당 교원 수가 매우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사용되고 있고, 정년트랙뿐만 아니라 비정년트랙의 강의전담교수, 산학협력 중점교수 등 다양한 유형의 교수를 충원하는 등 대학에서 편법적인 교수충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요소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3년에 교수의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체육계 교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학과 통폐합 및 융·복합에 의한 학과 신설로 타 전공 교수의 유입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3].

교원을 확보하는 것은 체육계열 학과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변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또한 체육백서에서 ‘안정적 성장단계’라는 것은 특정 대학교의 국한된 표현일 수도 있다. 안정적 성장은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위기와 체육계열 학과의 추이를 분석했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대학평가 방식은 재단의 제정이 상대적으로 충분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대학교일수록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평가방식이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그러한 획일적 결과로 대학교를 서열화해서 오히려 소외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악순환의 구조를 갖게 된다.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가 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환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체육계열 학과는 체계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처방적 개선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체육계열 학과의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4. 체육계열 학과의 실천적 과제

미래지향적 체육계열 학과의 실천적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실천적 과제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연계하고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다. 학문이 성립되는 조건은 고유한 지식의 본체, 독자적인 연구방법론, 고유한 연구대상 등이 존재해야 한다. 물론 체육학은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 이학준[14]은 체육계 학문을 운동학으로 표현하고,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고유한 지식의 본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학과의 정체

성에 대한 논의를 보면 학과 명칭만으로 학과의 특성을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학과의 명칭이 그 특성을 분간하기 어렵다면 정체성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Table 5> 에서와 같이 2014년 현재 4년제 대학의 체육계열 학과 수가 386개이고, 2년제 대학의 체육계열 학과 수가 208개라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더불어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4년제 체육계열 대학의 경우 학과 수가 334개이고, 2년제 대학의 체육계열 학과 수는 275개로 대학의 수를 초과하고 있다[15]. 이에 체육계열 학과가 ‘학과’로서 존립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수행⁷⁾(performance), 학문(discipline), 실천(practice)이라는 세 가지 지향을 토대로 학과로 구체화할 것을 김홍식과 민현주[6]가 제시했다. 물론 체육계열 학과가 사회적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과 명칭을 다양화하고 다변화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학과’는 학술 분과에 따른 교육과 연구의 구성단위이다. 따라서 체육계열 학과에서도 학문적 체계구성을 위해 대분류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세분화, 특성화하는 변화가 요구된다.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각 대학별, 지역별,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로서의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각 지역과 대학의 상황을 고려한 특성화 전략이다. 특성화란 ‘대학이 자체적인 발전전략을 기초로 비교우위가 있는 기능과 분야에 지역·학내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대학경쟁력을 제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16]. 체육계열 학과로 환원해서 그 과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체육학과 명칭을 다양화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교육 수요자 요구의 다양화, 글로벌화 등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특성화를 실천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해양레포츠 육성, 등산을 비롯한 야외교육, 생태교육과 연계한 교육과정 등을 특성화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대학 내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다양성과 직업 역량 함양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7) 수행을 주체와 연관시키면 운동/실기 전문가(technician)와 학문은 과학/이론 전문가(theorist), 실천은 교육/지도 전문가(practitioner)와 연관된다(김홍식, 민현주, 2010).

또한 체육계열 학과의 경우에도 새로운 사회적 의제와 학과의 연관성을 재정립하며, 지역의 특성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계열 학과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성찰을 통한 논쟁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박정원[17]은 “수요 감소의 위기에 개방형 대학, 즉 시민사회대학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대전지역의 실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러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체육계열 학과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학과로서 존립할 수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특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즉 체육계열 학과 구성원들의 협력적 특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이 ‘열린 학과’에서 ‘열린 대학’으로 변화하고 특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여기서 ‘열린대학’의 의미는 성인계속교육대상자를 위해 신설되는 평생교육차원의 연계 또는 성인학습자에게도 개방된 대학의 의미를 갖고 있다. 각 체육계열 학과들은 효율적 운영과 차별화된 교육과정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발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차별화된 교육과정은 해당 체육계열 학과의 교육 내용과 시설 등 기반 시설을 토대로 상대적 우위에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노동시장 여건 전망과 연계된 체육계열 학과의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대학에서 취업률이 대학 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면서 대학의 상업화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주의 입장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18]. 이에 체육계열 학과는 사회적 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진로와 취업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질과 자격이 드러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 그리고 자격의 정립을 강조해야 한다[6].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지역의 체육관련 기업이나 스포츠센터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직업경험과 현장중심의 직무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한편, 김경숙과 주성순[18]은 체육계열 학과의 진로교육과 전문성 강화방안으로 체육전문인 교육과 진로교육 강화, 체육관련 취업현장의 확보 및 확대, 체육학 하위 학문 간의 연구공동체 형성, 스포츠 전문직에 따른 표준

화된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개발을 주장했다.

한편, 2015년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자격 취득이 전문직 혹은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여건의 전망을 토대로 전문인을 양성하고 신뢰성이 높은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자격제도의 강화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전문인 고용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전문성이란 직업수행을 위한 장기간의 교육과 자율성과 그에 따른 책임, 전문적 지식 등을 요구한다. 따라서 체육계열의 자격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체육학의 전문적 지식이 가지고 있는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적 가치는 개인과 국가·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계열 학과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성찰과 의학, 법학과 같은 공적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체육행정 직렬을 신설하여 체육전공자들이 체육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여할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육계열 학과의 연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은 비교적 안정세에 있으나, 지방의 경우에는 생존을 위한 지역 경쟁구도에서 상생구조의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부의 2015년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간 균형 발전’은 ‘지방의 위기’로 드러났고, 이에 지방의 연합체계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대학차원에서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체육계열 학과 차원에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체육계열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체육계열 학과간의 연계와 통합연수, 공동 학술교류 활동 등으로 연합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체육계열의 개별학과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연합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의 대학, 학과의 결단과 정부의 조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합회의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체육계열학과의 실천적 과제의 지향점과 안을 제시하여 그 역할과 실천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체육계열학과의 새로운 역할이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학문과 학과로서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MENT

This paper was presented at 2013 Korea Sport Scientists Integration Conference and revised to a large extent.

REFERENCES

- [1] S. M. Jang, Political Economy and Reformation Subject for Crisis of University in Korea. Founder's Symposium of Korean Society for University, pp. 49-82, 2014.
- [2] DOI: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0926>
- [3] S. J. Ban, Major Issue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and Discussion for New Alternative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18, No. 2, pp. 14-26, 2015.
- [4] DOI: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55>
- [5] S. J. Ban, Issues and improvement of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for the Present Government. Founder's Symposium of Korean Society for University, pp. 1-45, 2014.
- [6] H. S. Kim, H. J. Min, Issues in Restructuring University Departments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9, No. 3, pp. 45-55, 2010.
- [7] T. S. Lim, J. W. Park, A Plan for Enhancing the Expertise of Sport/Physical Education-Related Departments in Universitie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1, No. 1, pp. 283-299, 2012.
- [8] E. C. Choi,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in Future: 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Newsletter, Vol. 78, pp. 6-12, 2001.
- [9] Ministry of Education,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2014.
- [10] Ministry of Educ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n) Analysis Materials on Education Statistics. 2014.
- [11] J. S. Kim, I. J. Jeong, J. H. No, The Status and Future Strategy of College Education in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Seminar, No. 3, pp. 23-53, 2010.
- [12] DOI: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11/2015091100195.html
- [1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hysical Education White Paper. Jinhan M & B, 2013.
- [14] H. J. Lee, A Regulation of Title 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and Philosophical Inquiry on its Identity. Philosophy of Movement: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Vol. 18, No. 1, pp. 115-126, 2010.
- [15]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Department (Major) Classification In 2014.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5
- [16] Ministry of Education, Strategies for Promoting University Specification, 2005.
- [17] J. W. Park,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Without Reform of University. Founder's Symposium of Korean Society for University, pp. 85-90, 2014.
- [18] K. S. Kim, S. S. Ju, Exploring the Way to Enhance Career Path and Professionalism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Related Departments in Korean Universities. Korean Association of Sport Pedagogy, Vol. 22, No. 3, pp. 23-40, 2015.

이 주 욱(Yi, Joo Wook)



- 2002년 2월 : 명지대학교 체육학과 (체육학사)
- 2004년 2월 : 고려대학교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 2008년 2월 : 고려대학교 체육학과 (체육학박사)
- 2010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학교체육, 야외교육
· E-Mail : joowookyi@c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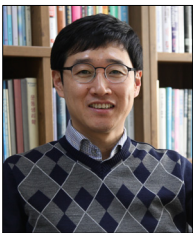
한 동 수(Han, Dong Soo)



- 2001년 2월 : 충남대학교 사회체육학과(체육학사)
- 2003년 2월 : 충남대학교 사회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교육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대전태평중학교 교사

· 관심분야 : 학교체육, 체육정책
· E-Mail : gugudak@naver.com

윤 대 현(Yun, Dae Hyun)



- 1997년 2월 :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체육학사)
- 1999년 2월 : 충남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05년 2월 : 충남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심리상담, 심리기술훈련
· E-Mail : dhyun-cnu@hanmail.net